

7) 송정(松亭)

마을 앞 제방(堤防)에 송림(松林)이 울창하여 정자(亭子)의 역할(役割)을 해주었다. 마을 사람은 물론过客(過客)의 휴식처로 좋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마을의 허(墟)한 곳을 보충하기 위해 가꾼 비보(裨補) 숲이다.

8) 신선대(神仙臺)

마을 앞을 흐르는 남대천의 절벽으로 옛날에 신선(神仙)이 놀았다고 하며 풍류객(風流客)이 놀았다고도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9) 장대룡장군(張大龍將軍)의 묘소(墓所)

이 마을 사리곡(獅狸谷) 동편(東便) 천지봉(天池峯)의 첫 산등에 있다.

10) 정림사지(淨林寺地)

정림리 절골의 비봉산 아래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인 정림사의 터이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며 이곳에서 사지의 주춧돌과 석탑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5. 장고진사댁 전설

정림마을에서 출생한 영양인(英陽人) 남응대(南應大)·남응협(南應夾)·남응태(南應泰) 3형제가 모두 총명하고 학문에도 뛰어났다. 그중에서도 둘째인 남응태가 더욱 뛰어났다고 한다. 1847년(헌종 13)에 3형제가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맏형과 셋째는 급제(及第)를 하였으나, 둘째는 낙방(落榜)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선조(先祖)의 못자리가 장고(長鼓) 형국 이어서 장고(杖鼓)는 양단(兩端)이 둥글면서 높고 중간(中間)은 잘록하게 생겨 있어 높은 양단(兩端)은 형(兄)과 계(季)씨이므로 합격하였고, 잘록한 중간은 중씨(仲氏)이므로 낙방하였다고 한다. 이들 삼 형제가 태어난 본댁(本宅)을 장고진사댁(長鼓進士宅)이라 부르고 있다.

제19절 정림2리(井林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마을 뒷산 너머에 명도2리인 세거리와 아산동(鵝山洞)과 접하고, 서쪽은 마을 앞

산 고부랑제 너머의 정립1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마을 앞의 내(川)를 따라가면 장례동(壯禮洞)이 있다. 북쪽은 북면 사계리와 내(川)를 사이에 두고 경계(境界)를 이루고 있다. 2007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다리골(酉谷)

12가구(家口)가 사는 작은 마을로 산세(山勢)가 닭 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 박금동(拍琴洞)

1510년에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마을을 개척(開拓)하여 박금(拍琴)이라 하였다 한다. 이 마을의 동구(洞口) 쪽에 있는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은 형국(形局)’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박금(拍琴)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의 소리가 거문고를 타는 소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그 후 영해 박씨(寧海朴氏)가 입주(入住)하여 마을 형성(形成)에 가세(加勢)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31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대종을 이루며 영해 박씨(寧海朴氏), 신안 주씨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거이재(居易齋)

기호학파의 마지막 철학자이자 척사론의 태두 간재(艮齋) 전우(田愚)[1841~1922]의 문인으로 올진 지방 마지막 유학자로 칭송받고 있는 가암(柯菴) 전원식(田元植)이 강학(講學)을 하던 교육공간이다. 폐허됐으며, 유허비가 있다. 가암이 초당을 짓고 ‘가동정사(柯洞精舍)’라 이름하고, 뒤에 초가를 한 채 더 짓자 간재가 친필로 ‘거이재’라 편액 했다. 1993년 가암학회에서 유허비를 세웠다. 가암 전원식은 무실재(務實齋) 남진영(南軫永)[1889~1972], 경재(綱齋) 정연국(鄭然國)과 더불어 올진지방 마지막 유학자로 칭송되는 정통 성리학자로서 근현대 한반도 격변의 역사 속에서 유학의 도리를 지키고 실천한 유학자이다. 스승인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이 호를 지었다. 「성토김창숙문(聲討金昌淑文)」을 연명으로 작성하여 간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2) 경무사(景武祠)

경무사(景武祠)는 인조 때 진무원종공신록(振武原從功臣錄)의 일등공신이자, 병조참판으로 추증된 남몽길(南夢吉)을 모시는 사당이다. 남몽길은 영양 남씨 현감공파의 파시조인 남신(南頤)의 후손이다. 1684년(숙종 10)에 창건, 금계사(琴溪祠)라 부르다가, 1851년(철종 2)에 중건하여 경무사로 개칭하고, 1877년(고종 14)에 재중건했다. 남몽길은 이괄의 난 당시 호군(護軍)을 지냈으며,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관직을 받았다. 남몽길에 대한 기록은 간재 전우의 문인인 무실재 남진영이 쓴 『경무사봉안문(景武祠奉案文)』이 현전한다.

3) 서재들(書齋들)

옛날 이곳에 서당(書堂)을 짓고 후진(後進)을 육성하던 곳이라 전한다.

제20절 정림3리(井林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비봉산(飛鳳山)이 우뚝 솟아있고, 정림1리와 접(接)하여 있으며, 서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편에 개물산이 있고 북면 하당리와 접해있다. 남쪽은 신선봉(神仙峯)이 솟아있으며 신림리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정림2리인 다리골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산두(山頭)

1650년경에 밀양 박씨(密陽朴氏) 박상(朴詳)이 마을을 개척(開拓)할 때, 마을 앞에 흐르는 남대천(南大川) 변(邊)에 긴 모래밭(沙田)이 펼쳐있다 하여 장사동(長沙洞)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 1740년에 신안 주씨(新安朱氏)가 입주(入住)하면서 산두(山頭)라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또는 박씨(朴氏) 선조(先祖)가 묻힌 곳이 말(斗)의 형국(形局)이라 하여 산두(山斗)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 산(山)머리라 하여 두(頭)자를 써서 산두(山頭)라 한다. 정림1리에 속하였다가 분동되었다.